

지역 대표명소로 거듭나는 순천 금곡 에코지오마을



낡고 오래된 순천 원도심 향동 일대 마을들이 벽화사업, 정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700년 이야기 간직한 골목길
느릿느릿 걸으며 봄을 느끼다

침체한 순천 원도심 향동 일대 마을들이 지역만의 참신함과 재미, 예술가의 코드 등이 더해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한때 하숙집과 자취방이 넘쳐났던 향동 일대는 골목 가득 넘쳐났던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순천을 대표하는 도심 공동화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의 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향동 일대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우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향동일대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에너지절감 등 집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금곡 에코지오마을을 조성했다. 에코지오 마을은 동쪽으로는 중앙파출소, 서쪽으로는 공마당길 아래쪽, 남쪽으로는 한옥골방쪽, 북쪽으로는 매산고 건너편이 경계다.

에코지오마을을 조성사업은 마을주민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 오래된 역사 속에 그대로 녹아들도록 했으며, 특히 주민이 직접 마을을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그렇게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허물어

꾸준한 도시재생사업 효과
침체됐던 원도심 생기 돌아
벽화사업·작가정원 조성 등
참신함·재미·예술향기 풍성

져 흠뻑 젖었던 빈집 주변과 거리에 '이웃 사촌' 정원이 조성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정원의 도시 순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 유명 작가들이 직접 조성한 작가정원도 마을 주민이 만든 정원과 어우러져 지역 명물로 거듭나고 있다.

또 생태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탄소배출 최소화과 자연 에너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 마을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경로당을 시범공간으로 벽면녹화, 빗물활용, 에너지절감형 집수리, 태양광 등도 설치했다. 비바람에 씻기고 남은 빗물은 새 옷을 입었고, 넓은 뜰이 있는 주택에는 빗물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이 설치됐다.

오래전 봉지쌀을 판매하던 쌀집에는 쌀을 싣고 마을을 달리던 자전거가 금방이라도 달려나올 듯 쌀집 벽면에 붙어 소담하게 꽃을 피우고 있고, 700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골목길에는 새들이 날아들 것 같은 새집들과 봄꽃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원도심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생태주차장과 생태주차장이 있는 매산고의 역사를 담아 학도병 충혼거리도 조성됐다. 특히 생태주차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차장 명칭 공모전을 실시해 '매산골 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주차장의 개념을 넘어 주민의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태양광 휴대폰 충전소, 수목의 관수를 위한 빗물저금통, 나무로 만든 주차스토퍼 등이 조성돼 있다.

낡고 방치됐던 건물도 개보수돼 창작에 솔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배병우 사진작가, 김혜순 한복명인, 조강훈 화가 등의 창작스튜디오가 이곳에 등지를 틀면서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선물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 시작된 마을 이야기는 순천부유성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청수골 새뜰 마을 사업으로 연계돼 현재 진행형이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청수골의 낡은 집들은 개보수 되고 마을 입구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돼 주민들이 직접 공방, 카페, 빈집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 오래된 흔적과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매산동 안력산 병원 격리병동도 리모델링돼 주민을 위한 건강진단, 치료,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순천시 올해 1억 부농 110농가 육성한다

오이·미나리·딸기·꽃감 등
7대 고소득 작목 집중 지원

순천시가 올해 '연 1억원 부농 110농가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순천시는 "올해 주수입 1억원 이상 부농 110농가를 육성하기로 하고 7대 고소득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7대 고소득 전략 작목은 오이, 미나리, 딸기(묘), 참다래, 복숭아, 꽃감, 조기햇살 등으로, 순천시는 경쟁력을 갖춘 이들 품목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들어 한창 출하중인 오이와 미나리는 순천을 대표하는 작물로, 오이는 온난한 기후와 자원에 민감해 순천이 최적지로 꼽히면서 300여 농가 110ha에서 재배하고 있다. 순천 오이는 1960년대 도사동 지역에서 시작해 낙안, 상사, 황전, 풍덕 등으로 확대해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오이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농업자재 사용 등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순천 오이는 아삭하고 싱그러운 맛이 일품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로 출하돼 연간 254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산 미나리는 세계적인 유명인 5대 연안 습지이자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인근 도사동을 중심으로 89농가 64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향이 독특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시는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천의 맑은 물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비롯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특점 배타적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순천 미나리 단체 표장 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순천 외서 딸기묘도 지역 농민들의 '부농 꿈'을 키워주는 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산간지에 있는 외서는 최적의 기후 조건과 지속적인 육묘기술 교육을 통해 우량한 딸기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100%

계약재배로 60농가에서 연 3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는 이처럼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고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계획'을 수립했으며 5개년 투자계획도 확정했다.

시는 사업 첫해인 올해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오이 ICT 스마트 팜과 연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딸기(묘) 우량묘 생산을 통한 수출단지 공급 ▲미나리 친환경 인증으로 농가소득 향상 ▲참다래 레드·골드 품종 갱신으로 수출확대 ▲복숭아 당도 향상과 공선 출하시스템 구축 ▲꽃감 상품 다양화와 고급화 ▲'하늘아래 첫쌀 순천햇살' 품종단일화 및 유용미생물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올해는 주수입 1억원 이상 110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0농가, 2021년에는 220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1억 송이 봄꽃 축제 유혹

오는 5월 7일까지 '1억 송이 봄꽃' 축제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전 세계 35종 20만송이의 튤립과 노란 빛깔 유채꽃이 만개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 30분간 '플라워 퍼레이드 쇼'가 펼쳐지고, 하루 4회 이상 마칭밴드 공연, 마임공연, 저글링, 피어로 공연, 트릭마임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열린다.

또 5월 어린이날 주간에는 '플라워 퍼레이드쇼'와 연계한 동화·만화 속 주인공 코스프레, 어린이 야외 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장기 기증 캠페인 호응
3월에만 723명 서약

순천시는 "고귀한 생명나눔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서약 릴레이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월 1회 기관·단체장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의 첫 번째 릴레이는 조충훈 순천시장과 시청 직원들이 참가했다. <사진>

순천시보건의소는 조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의 서약을 시작으로, 모든 실·과·소



를 직접 방문해 희망등록 서약을 받고 희망의 씨앗 인종상을 SNS에 올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캠페인 시작 후 3월에만 723명이 서약에 전월보다 3배가 넘는 숫자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지속적으로 방

문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눔과 배려의식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의 장기기증 희망 서약자는 3월말 현재 총 1만4655명에 이른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Advertisement for Mirsam Medical Center.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Includes details about building size (767m², 794m², 743m²) and medical services. Contact: 062-972-8845, 010-3635-5800.

Advertisement for Chilman Waterproofing. Features large text '방수' and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Includes contact info: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Logo for Chilman CMTECH. Text: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